

서울대학교 교사 대상 간담회(2020.6.16.)

전라북도교육청

I. 2021학년도 입학 주요 변경사항

1.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모집단위명 변경

기존	변경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우주항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과
디자인학부(공예)	공예과
디자인학부(디자인)	디자인과

2. 첨단 분야 학과 학생 정원조정

모집단위	기존	변경
전기전자공학부	156명	161명
컴퓨터공학부	55명	70명

3. 미술대학

지역균형 디자인과 실기미포함 전형으로 변경, 실기포함은 정시 일반전형에서 실시

4.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최저기준 완화

	기존	변경
전 모집단위, 작곡과	4개 영역 중 3개 이상 2등급 이내	4개 영역 중 3개 이상 3등급 이내
성악, 기악, 국악과	4개 영역 중 2개 이상 3등급 이내	4개 영역 중 2개 이상 4등급 이내

※ 탐구영역 충족 방법 확인 필요

5. 지역균형 전형 일부 모집단위에서 면접시간 조정

6. 정시에서 출결, 봉사,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 반영하지 않음. 단, 학내 징계여부는 반영

II. 서류평가의 방향

1.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 주도적인 학업습관이 내재된 학생
- 불굴의 집념으로 포기하지 않는 학생
- 학업 과정까지 우수한 학생
-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
- 함께 성장하려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학생

2. 이수 과목, 진로선택 과목 등을 통해 대학 수업 이해를 위한 기초학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3. 생기부가 누가 더 우수한가 여부를 이야기 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
 - 봉사활동은 시간이 적더라도 그 활동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중요
 - 임원 경력의 이력보다는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정성적으로 평가
 - 의미 있는 자소서와 추천서도 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추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서류기반 면접의 질문의 심도가 깊어지고 있음. 꼬리물기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III. Q & A

1. 귀 대학교에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지원결과 및 경향은?(수시 및 정시)

- 전북지역 지원자 풀은 타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일반 전형 지원자 수가 적은 편이다.
-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는 전북소재의 고등학교의 수가 늘고 있다.(최종등록자 기준)
- 전국대비 4.07% 로 평균적인 합격비율을 보이고 있다.(재학생 59명, 총 81명)
- 지역은 학과 선택에 소극적인 면이 있다. 지원할 시 과의 선택이 좁은 경향을 보인다.
- 전북지역 학생들이 공과대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적다. 합격 인원도 당연히 적다. 반면, 선호하는 단과대는 사범대이다. 그러나 사범대는 뽑는 인원이 적다.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 농생대 지원을 꺼린다. 농생대와 공대가 모집인원이 큰데 반해 지역학생들이 지원을 꺼린다.

2. 2020 지원결과를 고려했을 때, 귀 대학에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의 주요 지원 전략은?

- 지역균형 전형에서 전북 지역 학생들의 학과 선택이 다양하지 않다. 대표학과로만 지원하려 한다. 일반전형은 조금 고른 편이지만, 사범대가 모집인원을 고려해볼 때 지원자가 많다.
- 학부과정에서 어려워 보이는 학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사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등이 될 수 있다. 전공을 살펴보고 지원하면 좋겠다. 농생대가 미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 지역균형 선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능(자연계열)이다. 전북지역 선발 결과를 보면, 인문은 최초합과 등록인원이 같다. 자연계열은 수능 미충족 인원이 공대 80%(8명/10명), 농생대 62.5%, 수의 100%, 의대 22%다. 사범대도 50%이다.
- 기회균형의 경우, 인원대비 합격률은 준수한 편이다. 단, 지원 시 선발인원이 극히 적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고교프로파일 및 전형서류의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서류평가의 중점사항은?

- 일반전형 인문대학(서류통과 41.2% > 면접통과 42.9%), 사회과학대학(서류통과 20.8% > 면접통과 100%)에서 1단계 합격한 학생이 최초합까지 가는 비율이 크다. 그러나 공과대(서류통과 40.4% > 면접통과 33.3%)와 농업생명과학대학(서류통과 34.8% > 면접통과 25%)은 1단계 합격자가 최초 합까지 가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 전북지역 학생들의 일반전형에서 인문 서류 통과율 41%, 면접통과율 43%(7/17), 최초합 3명의 결과를 보였다 유의미한 결과다. 사과대 1단계 합 비율 20%, 자연대 16%, 경영대 33%, 공과대 40%, 농생대 34%이다. 면접 통과율은 사과대 100%, 자연대 20%, 경영대 50%, 공과대 33%, 농생대 25%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1단계 서류 합격 비율과 면접 통과율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류도 잘 준비해야 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4.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학생부 기록의 간소화를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대비해야 할 평가 중점 사항은?

-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것은 지원모집 단위 관련 과목 이수이다. 당연히 확인한다. 진로 선택과목을 단순히 많이 수강한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서 그 내용과 깊이를 확인한다. 학생부의 물리적인 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트를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5.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전북지역 학생들이 합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영역은?

- 3년간의 평가 결과를 보면, 서류평가 분포에서, 지역균형에서의 평가결과는 준수하다.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타 전형에 비해 취약하다. 면접결과를 보면, 지역균형, 기회균형의 평가결과는 준수하나 일반전형의 결과는 역시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전북지역 학생들은 서류기반 면접 능력은 양호하나 제시문 기반 면접은 부족한 편이다. 서류 확인 면접에서도 꼬리 질문, 심도 있는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저학력 미충족은 인문계열은 거의 없다. 자연계열은 수능최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 2022 대입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은?

- 지원 학과에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은 갖춰 달라. 자연계열은 수학, 물리2 정도는 해 와야 한다. 교과 선택의 폭을 넓게 주었으면 한다.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선택과목 수에 따른 유 불리는 없다. 준비가 된 정도가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지원 시 물리, 수학을 해 오면 좋고, 두루뭉술한 다수의 학과 특히, 인문은 다양한 경험, 깊이 있는 경험, 자연계열 경험 모두 좋다.

7.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과목선택권, 우리 학교 소인수과목(미적분)은 석차등급이 나오지 않지만 타 학교는 나온다. 어떻게 평가 하나?

-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며 평가에 참고한다. 소인수과목만 대부분 수강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평가는 좋게 나오기 어렵지만 평가는 수업의 내용위주로 집중이 되며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인지하면 된다.

8. 올해 3학년 학생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비교과 영역의 글자 수가 적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내용이 더 적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교과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

- 현재 고3 지역균형 기준 걱정할 필요가 없음. 현재의 학교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 서류는 재수생과 확실히 구분이 되므로 상식적인 기준에서 평가하여 불리함이 없도록 함.

9. 디자인과 실기가 사라졌는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 실기에 치중했다면 정시로 가는 것이 맞다. 미술대학의 모집인원이 적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다. 실기 미포함은 과거에도 있었다. 실기 미포함은 실기 능력은 묻지 않는다. 디자인과 실기 미포함의 이유는 학업 우수한 학생 선발해서 실무적인 능력을 대학에서 가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기에 좀 더 집중하거나 역량이 있다면 정시로 지원하는 게 맞다.
- 1차를 통과하는 순간 실기 점수는 사라진다. 그 다음은 학업이다. 음악대학은 극단적인 경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로 완전히 안하는 학생이거나 매진하는 학생으로 분류된다. 학업역량을 꾸준히 키워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예술대의 경우 실기뿐 아니라 학업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 2022 대입 종합전형에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중점사항은?

- 지원하는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할 과목을 잘 챙겨서 이수해야 함.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 과목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가 더 포인트이며 준비가 된 정도의 판단은 인문과 자연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계과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물리에 대해 배운 경험 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대학에서 수학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기본 관점이다.

11. 물리1 안 듣고 물리2 들은 학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 물리 전공을 할 계획이 없었다가 추후에 이 분야의 진학의 의지가 생긴 경우는 이해가 가능하다.

12. 서류평가 시 합격할 것이라고 보는 학생들이 인문계에서는 대부분 수능최저 충족, 자연계열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단위 학교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되고 최저를 충족시키고 있던 학생들만 지원시키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 의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데 자원 중 이미 서류평가에서 걸러낸 학생들에 대한 수능최저가 과연 필요한 것이라 보는가?

- 다각도로 이에 대해 논의 중이고 생각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

13. 지균 최저기준 완화되면서 교과 성적의 컷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합격 컷은 있지 않다고 본다. 서류평가가 우선이며 추후 데이터를 보고 최저 통과 여부를 확인할 뿐이다.